

예지력이 뛰어난 경세가 퇴재(退齋) 권민수

퇴재(退齋) 권민수(權敏手, 검교공과 19세)의 조부는 공주목사를 지낸 권유순(權有順)이고 아버지는 광흥장주부(이조참판으로 추증)를 지낸 권임(權琳)이다. 권임의 동생은 안동권문의 유일한 청백리 권빈(權璘)이다. 권임의 장남은 퇴재 권민수(1466~1517)이고 둘째는 동계(桐溪) 권달수(權達手, 1469~1504)이며 막내는 퇴당(退堂) 권계수(權价手)이다. 과거시험에는 동생 동계 권달수가 형보다 먼저 1492년(성종23)에 급제하고 형인 퇴재 권민수는 2년 후 1494년(성종25)에 급제한다. 형제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인재’라고 명성이 자자했다. 그러던 차에 2년 간격으로 형제가 나란히 급제하여 출사했으니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막내 퇴당 권계수는 사마시에서 생원과 진사에 급제한 후 충청도 홍주판관(洪州判官)을 지냈다. 퇴당은 갑자사화로 형 동계 권달수가 화를 입자 연루되어 고초를 겪다 벼슬을 버리고 귀향한 후 종신토록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퇴재 권민수는 연산군 1년(1495) 7월에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임용된 후 졸공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거듭한다. 그러다 연산군 3년(1497)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승진하여 근무할 당시 연산군이 후원에서 활조기를 관람하는 후원관사(後苑觀射)에 대해 논란 일이 화근이 되어 갑자사화(연산군 10년, 1504) 때 상주로 유배되는 화를 당한다. 그러나 2년 뒤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중종반정(1506년)이 일어나 퇴재는 귀양에서 풀려나고 조정에 곧바로 발탁된다.

퇴재는 홍문관 부제학으로 봉직하며 중종에게 상소를 올린다. “화려하고 단청이 잘 되어 밖으로는 그 변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재목 속은 이미 다 썩어져 다시 지탱할 수 없다 하였으니 지금의 형세가 무엇 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이는 임금에 “모든 일에 걸치레만 따르며 임지(立志)가 높지 못하”고 “인동과 정사에 거의 다 상례를 따라 유사(有司)의 상례대로 할 뿐”(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4월 24일 무술)이기 때문이라고 거침없이 직언한다. 그러니까 걸만 번지르르 하나 속은 다 썩어 문드려져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중종은 국정에 대한 입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말과 일을 유사의 상례(常禮)대로만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유신지치(維新之治)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병폐가 반드시 여기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사헌부 대사헌으로 봉직할 때는 “전하께서 정사를 맡아서 잘 다스리기를 바라신 지가 10년이 되었 습니다. 비록 자상하시고 개계(愷梯: 옹모와 기상 이 화평하고 단아함)하나 정이 아래에까지 두루 다 미치지 못하였으며, 비록 부지런히 고혹을 구휼하 나 시름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 다. 요즈음 모든 관료들은 게을러서 눈앞의 안일만을 탐내”(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4월 23일 경진)고 있다고 다그친다. 연산군의 학정과 폐단을 일신 시키자고 반정(反正)을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즉위 10년이 되었어도 자상하고 단아한 옹모와는 달리 무기력하고 백성들의 삶은 팍팍하여 치욕과 탄식이 그칠 날이 없는데도 눈앞의 안일만을 탐내고 있는 중종과 관료들을 싸잡아 질타한 것이다. 모름지기 “대신이란 것은 나라의 고광(股肱)으로서 음양의 이치를 도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판단을 내려, 국론(國論)을 통일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직책일 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옛것만 따라 구차하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서 사리사욕만 채우며, 큰일을 결정하고 큰 계획을 논정(論定)할 때면 겨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애매하게 우물우물하여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의이 한번 나오면 못사람의 심정에 맞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길가집 짓는 일 같아서 마침내 정론(定論)을 얻지 못하니, 그 ‘하늘의 조화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은 어디에 있습 니까?”(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4월 23일 경진) 나라의 다리와 팔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신들이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속식원히 해결도 못하면 서 사리사욕만 채우고 국가 대사에 대해 분명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며 우물우물 하는 자세를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 그 모습이 마치 길가에 집을 짓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대신들이 산 폴이니 국가경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따끔하게



동계 권달수의 부인 동래 정씨의 정려각



잉어명당으로 유명한 퇴재공의 묘소. 묘소 바로 앞 상석에서는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고 묘소 밑의 상석에서는 후손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중으로 설치된 상석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퇴재공 신도비. 신도비는 거북 받침돌인 귀부(龜趺)가 고개를 퇴재공 묘소를 바라보고 있는 특이한 형상으로 세워져 있다.

일침을 놓는다.

또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일파인 김경(金靜, 1486~1520), 박상(朴祥, 1474~1530) 등이 폐비신씨(廢妃愼氏: 신수근의 딸)이자 소한당 권림의 외손녀) 복위를 추진하였을 때 신진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대사간 이형(李荇, 1478~1534)과 더불어 적극 저지한다.

퇴재에게는 예지력이 돋보인다. 대간이 소름(昭陵)을 회복할 것을 청원할 즈음 퇴재가 승정원에서 속직을 하는데 해평군(海平君) 정미수(鄭眉壽)가 영상 유순정(柳順汀)을 손찌검 하며 분함인 있는 듯 하고 유순정은 매우 군색해 하는 것을 꿈꾸고, 권민수는 놀랍고 괴이하게 여겼다. 며칠 후 능을 회복하자는 논의가 나왔을 때 유순정이 그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논의가 끝나자 갑자기 유순정이 병이 나 조당(조정 국사를 의논하는 곳)에서 업혀 나왔다. 정미수는 소름 현덕황후의 외손이다. 사람들이 “귀신 이 보복하고 저승에서 보응받는 것이 어찌에 어김이 없다 하더니, 권민수의 꿈이 이에 이르러 바로 맞았다” 하였다.(응전담적기) 소름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의 전말에 관한 꿈을 미리 꾸었으니 묘한 꿈이 아닐 수 없다. 소름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부정공과 16세)의릉이다.

퇴재는 재변(災變), 임금의 도리, 공정한 법집행, 연로의 소통 등 국정의 다방면에 걸쳐 상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국방분야의 시폐(時弊)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대단히 탁월하다. 야인 속고내(倭古乃)가 국경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무리를 이끌고 변방에 침입하여 군민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니 백성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 시점에 좌의정 유순정 등이 속고내 관련 상소(중종7년 4월 28일 임인)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골치 아픈 속고내를 어떻게 처치하고 소탕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터였다. 퇴재는 속고내에 대한 최초 상소가 올라간 지 9일 만에 군정(軍政) 등을 포함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도리를 열거하며 상소”(중종7년, 1512년 5월 7일 경술)한다. “국가가 태평에 젖어 병정이 정비되지 않고 인심이 해이해졌습니다. 왕년에 왜적이 남방에 침입하자 장사(將士)들은 그 풍문만 듣고도 산산이 흩어져서 심지어는 성을 버리고 도망쳐서 왜적으로 하여금 무인지경같이 들어오게 하여 관사를 불지르고 인민을 도륙하되 주수(主帥)는 군사를 거느리고도 망설이고 앉아 보기만 하고 방비하지 않아 국가에 끼친 그 수치를 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즈음 북방오랑캐가 함부로 날뛰어 열흘 사이에 두세 차례나 인민을



노략에 갇습니다.” 그럼에도 변방을 지키는 무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귀가해 버리고 도둑떼가 물려들어 기탄없이 도륙하는데도 겁내고 엄습할 께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군정을 엄히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한다. 이에 중종은 군정 등에 대해 시폐를 지적한 것이 맞는 말이니 두루 보이고 모든 재신들과 회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한다.

퇴재는 같은 해 5월 24일에도 국방문제를 거론한다. 장엄한 지 백여 년 동안 태평을 누리다보니 병기가 못쓰게 되고 적을 잇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북방의 추장이 적당(賊黨)을 모아 무인지경을 짓밟듯이 기탄없이 깊숙이 침입하여 우리 백성을 노략질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다.

퇴재는 중종11년(1516. 7)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한다. 퇴재는 재임시 침식을 폐하면서까지 직무에 진력(盡力)한다. 주위에서 병이 날 것을 염려하여 몸을 돌볼 것을 권유했으나 “임금에게 명을 받았으니 그 직책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사람이 병을 핑계대고 스스로 편안하려는 것을 미워할 일인데 하물며 감히 허물을 본받으란 말이냐”며 극구 거절했다. 그렇게 그는 주어진 목민관의 소임을 다하다 임지인 청주 공관에서 52세를 일기로 순직하고 만다. 묘갈명은 영의정을 지낸 절친 남곤(南袞, 1471~1527)이 찬했다. 남곤은 묘갈명에서

자신 단속을 엄하게 하였고
마음 속에 간직한 한 것은 인(仁)이었네
큰일 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죽었다단 말인가
추적하고 누리지 않은 채
자손에게 물려주고 떠났도다
천년 뒤에 사람이 있으면
권 군을 알고도 남으리라

퇴재는 행실이 순수하고 도량이 컸다. 식견이 고명하고 기개가 컸었다. 그래서 남곤은 큰일을 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죽었는지 퇴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천년 뒤에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퇴재가 타계한 이듬해(중종 13년, 1518)에 드디어 속고내가 조선의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병조판서 유담년(柳담年)이 오랑캐를 사로잡아야 한다며 급하게 회의를 요청하자 중종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병조판서가 함께 의논하게 한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특별히 별장(別將)이 지방(李之芳)을 파견하여 도모하도록 하자고 건의하자 중종은 ‘그리하라’고 명한다. 먼저 밀지를 내리고 감병을 보낸다. 거기에 먼 길을 떠나간다고 하여 ‘어의와 활과 화살’까지 하사한다. 그날이 8월 16일이었다.

다음날 8월 17일 출정을 위해 중종은 이지방을 궁궐로 부르키까지 한다. 이때 조광조가 변방의 문제는 가뱀이 의논해서는 불가하다고 아뢴다. 그는 “이것은 속이는 것이요 바른 것이 아니다.”(정암집) “속고내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 다만 제왕의 거동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속고내가 모역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사냥하러 왔을 뿐인데 우리가 불의에 엄습하여 사로잡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변장(변방의 장수)이 혹 편의로 처리하였더라도 불가한데 만약 조정에서 스스로 도적의 꾀를 행하여 재상을 보내어 엄습한다면 의리에 어떨겠습니까? ”라고 하며 불가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중종은 ‘이 말이 옳다’고 말한다. 그러자 영의정 정광필이 그래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자, 조광조는 모든 일은 인(仁)과 의(義)로 할 뿐이고, 사기의 술책을 가지고 도적의 방법을 행한다면 국가의 체면만 상한다고 극렬하게 반대한다. 이에 병조판서 유담년이 버럭 화를 내며 옛말에 “발가는 일은 남종에게 묻고 배짜기는 마땅히 여종에게 묻는다”고 하였으니 북쪽 문을 출입하며 머리가 하얗게 센 사조전문가인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러면서 이런 “물정을 모르는 선비의 말은 예부터 이와 같이 비록 이치에는 가까운 듯 하나 형세는 다 따르기가 어렵다. 묘당의 묘책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가뱀이 변경할 수 없다 ”(정암집)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중종은 가뱀이 움직일 수 없다며 다시 재론하도록 한다. 여기에 조광조의 일파인 김식(金澁) 등도 대저 왕자(王者)가 이적을 대하는 데는 성의와 신의로 해야 한다며 불의에 엄습하는 것은 왕자(王者)의 도(道)가 아니라고 거든다. 급기야 중종은 “방어사를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내 생각과 합치되니 보내지 않겠다 ”고 선언한다. 조정에서 삼정승과 병조판서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했고 별장을 파견하라고 명령까지 내렸던 중종은 불가하다는 조광조의 말만 듣고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린다. 수년 전부터 조선의 백성을 잡아가고 가축을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이적에 대해 군사작전을



안동부사를 지낸 부사공 권소의 묘소



베를명당의 기정공 권찬의 묘소



퇴재공 묘소 바로 밑에 있는 잉어 연못.

펼쳐서라도 엄습하여 사로잡는 전략이 중종과 조광조의 눈에는 사기의 술책이고 도적의 꾀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직 인(仁)과 의(義)와 성의(誠意)로 대해야만 하는 사상이었다.

8월 18일 조강에서는 왕도와 패도에 대해 논의를 한다. 기묘명현 중의 한 명인 심달원(沈達源, 1494~1535)은 속고내가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성의로 움직이면 감동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지방을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뢴다. 조광조 역시 지금 이 일은 폐술(霸術)이라 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간사한 꾀일 뿐이다. 패도(霸道)가 왕도(王道)보다 격이 매우 낮는데 또 패도보다도 더 낮은 것이야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다. 이 속고내 사건은 조선정치사상사에 있어서 패도가 탈각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때부터 조선의 국방체제는 사상적으로 이미 와해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치주의(至治主義)의 맹점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퇴재는 앞을 내다보기라도 하듯 문(文)으로 안을 다스리고 무(武)로 난을 다스리는 것이니 문과 무를 아울러 쓰는 것이 장구한 방법(중종 10년, 1515년 9월 29일 임자)이라고 문무겸전(文武兼全)의 국가경영의 방책을 제시했다.

퇴재는 아들을 둘 두었다. 큰 아들은 권찬(權繼)이고 둘째 아들은 권소(權紹)이다. 퇴재는 형제 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갑자사화로 죽은 동생 권달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동생 부인마저 남편을 따라 굶어 죽으니 후사가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긴 나머지 둘째 아들 권소를 계자(繼子)로 삼도록 한다. 부사공(府使公) 권소는 1556년(명종11) 겨울에 안동부사에 재임하면서 설날 그믐에 몸소 사당에 제사하고, 시조 태사공 묘역을 정수(整修)했으며, 제전(祭田)을 더 보태어 마련하였다. 제곡(祭穀) 1백석을 더하여 보태면서는 시조 태사공 묘소와 향사 등의 수호를 위해 비복(婢僕)도 제사(齋舍)에 배치하기까지 한다. 부사공 권소의 위선(爲先)의 선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삼태사묘를 중수(重修)하고 매년 설과 단오와 추석과 동지에 향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천등산의 조역(洮域)을 치수(治修)한다. 또한 퇴계 이항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하여 삼공신묘증수기(三功臣廟增修記)를 받는다. 시조 묘소 관리 및 제사 등에 지극정성인 권소에 대해 퇴계는 권소의 조획(措劃: 조치하고 획책함)함을 얻어 세심하 다 갖추어져 유감이 없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이후 퇴계의 삼공신묘증수기(三功臣廟增修記)는 권덕명(權德明) 등이 1726년(영조2년) “안동부(安東府) 삼태사묘(三太師廟)의 주벽(主壁)을 권행(權幸)으로 유지하게 해 줄 것 등을 청하는 상소”를 올릴 때 근거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한다.

상주 율곡리에는 이름난 명당이 3곳 있다. 하나는 ‘잉어명당’이라고 불리우는 퇴재의 묘소이다. 그래서인지 퇴재의 묘소 바로 아래에는 잉어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퇴재의 묘소는 다른 묘소와는 달리 제사를 지내는 상석이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이한 배치다. 큰 아들 기정공(岐亨公) 권찬이 딸 하나만을 두었는데 중종의 왕자 덕양군(德陽君)에게 출가했다. 그래서 묘소 바로 앞 상석에서는 왕실에서 제를 지내고 왕실에서 제를 지낸 그 상석에서는 후손들이 제를 지낼 수 없다 하여 묘소 밑에 상석을 별도로 설치하여 후손들이 제를 지냈다고 한다. 묘자리를 연구하는 풍수인들 사이에서는 ‘잉어명당’을 우리나라 8대 명당 중 하나로 손꼽는다고 한다. 두 번째 명당은 ‘베를명당’이라고 불리우는 좌찬성을 지낸 권찬의 묘이다. 세 번째 명당은 동계 권달수의 묘인데 ‘벌명당’으로 유명하다.

편집국장 권행완